

보험산업의 Think Tank

# 보험연구원 연차보고서

## 『2025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25년은 보험산업을 둘러싼 금리, 제도, 소비자 행태 변화가 증첩되며 불확실성이 높아져 보험회사의 사업모형 전환과 리스크관리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분명해진 한 해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과 정책 현장의 문제의식을 연구 의제로 구체화하고, 연구 성과를 적시에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보험산업은 금리환경 변화 이후 자산·부채관리의 재조정과 자본관리 전략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유동성 자산 확대에 따라 유동성 평가, 운영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전 과정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거버넌스와 소비자보호 이슈를 키우고 있고, 기후위험과 고령화는 보장 격차를 확대하며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과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소비자보호’를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혁신성, 확장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모형 전환 과제를 여러모로 점검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와 소비자 중심 경영, 해외 진출과 퇴직연금 활용 등 외연 확대, 시장 불확실성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과제를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인구·환경 변화에 따른 보장 격차 확대에 주목하여 고령사회의 소득과 돌봄 지원,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보호, 기후위험 대응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의 확산과 현장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보고서 외에도 최고경영자 및 정책·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CEO Report 및 CEO Brief, KIRI 리포트·보험법리뷰, 해외보험리포트, 영상자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산업, 학계, 정책당국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 연차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연구 및 대외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변화의 파고를 기회로 전환하고 우리 사회의 리스크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험연구원은 연구의 깊이와 확산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보험연구원장

안철경

I

2025년 보험산업 과제

Chapter 1 보험산업 경영환경 진단 ..... 2

Chapter 2 2025년 보험산업 과제 ..... 3

II

2025년 주요연구과제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6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지속가능) ..... 7

Chapter 3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9

Chapter 4 소비자보호 ..... 10

Chapter 5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11

III

2025년 정기간행물

Chapter 1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14

Chapter 2 CEO Report | CEO Brief ..... 16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이슈분석) ..... 21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이슈분석) ..... 34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 36

Chapter 6 KIRI 영상자료 ..... 38

## IV

## 2025년 대외활동

Chapter 1	KIRI 세미나 .....	42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47
Chapter 3	KIRI 보험법세미나 .....	49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50

## V

## 2025년 일반현황

Chapter 1	경영비전 .....	56
Chapter 2	연혁 .....	56
Chapter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57

## 발간 주요 보고서 형태

### 연구보고서

경제·금융·보험산업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포괄적으로 제시

### 이슈보고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

### 조사보고서

금융·보험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상품·정책·시장 측면의 조사 결과를 시의성 있게 제시

### KIRI 영상자료

보험산업 관련 주요 이슈의 핵심 내용을 짧은 동영상 콘텐츠로 제시

### 보험금융연구

1990년 12월 창간한 보험·금융 전문 학술지로서 2006년 1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5월, 8월, 11월 연 4회 발간

### CEO Report 및 CEO Brief

최고경영자, 정책 및 감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험 산업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 포커스·이슈 분석

웹 격주간지 『KIRI 리포트』·웹 격월간지 『KIRI 보험법리뷰』의 일부분으로 경제·금융·보험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속보성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제공

### 해외보험리포트

격월 연 6회 신흥 및 선진 보험시장에 해당하는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보험산업 관련 제도 및 규제,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

### Korean Insurance Industry

보험산업의 환경, 제도, 동향, 주요 경영실적을 연 1회 영문으로 소개

I

2025  
연차보고서

# 2025년 보험산업 과제

Chapter 1      보험산업 경영환경 진단  
Chapter 2      2025년 보험산업 과제



## Chapter 1. 보험산업 경영환경 진단

2025년 경제 및 금융환경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 완화 등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증가하지만, 상품수출 및 건설투자는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는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말 국채 10년물 금리는 2%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으로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우려는 상방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현재 시행 또는 검토 중인 ‘할인율 현실화 방안’, ‘보험개혁회의’ 등의 제도개선은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시행은 K-ICS 할인율을 더욱 하락시키고, 보험개혁회의의 주요과제 중 상품구조 및 회계제도에 관한 제도개선은 보험료, 부채평가, 당기순이익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2025년 보험산업을 전망해 보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악화, 건전성 악화가 예상된다. 2025년 보험산업의 전체 보험료는 2024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2.4%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은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하락, 해지율 증가 등은 보험산업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험회사별 영향은 상품 및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수준 등에 따라 편차가 크게 존재하여 일부 보험회사는 금리 하락 및 해지율 상승 등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커질 수 있다. 성장성 둔화는 보험계약마진 성장률 둔화를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수익성 악화는 이익유보를 통한 자본확충을 어렵게 하여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건전성 악화는 보장여력을 약화시켜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 Chapter 2. 2025년 보험산업 과제

2025년은 단기적인 미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하락 우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변화, 기술혁신, 기후변화라는 경영환경의 중장기적 흐름은 보험산업의 과제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은 보험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하락 지속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외부 환경변화를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소비자보호」라는 연구 목표를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성·확장성’과 ‘리스크관리·지속가능성’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한다. 혁신성·확장성을 위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보험회사 ESG 투자,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전망 등을 연구한다. 리스크관리·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는 설계사 직업의 지속 가능성, IFRS17 공시 사례, 보험회사 임원 보수규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 통화정책 전환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둘째,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주목한 연구를 추진한다. 사적연금 납입유인 제공방안, 치매 피해 시민안전 보험, 특수지원신탁,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보험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소비자의 신뢰수준, 중고령소비자의 금융역량 등을 연구한다.



# III

2025  
연차보고서

## 2025년 주요연구과제

-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지속가능)
- Chapter 3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Chapter 4 소비자보호
- Chapter 5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 평가와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보고서

국내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는 원리금보장형 편중, 옵트인 방식에 따른 낮은 가입 유인, 업권 간 이해 충돌 등의 한계가 있으나, 미국·호주·영국·일본 등은 사용자 면책, 실적배당형 중심 상품, 저비용·정보 표준화를 통해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이었으나 이해관계자별 인식과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옵트아웃 전환, 사업자 책임 강화, 성과 중심 평가 및 저성과 상품 퇴출이 필요하며, 보험업권은 실적배당형 운용 역량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 지속가능투자 촉진 방안

박희우(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보험회사는 지속가능투자에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투자 촉진을 위해 IAIS와 EIOPA의 사례를 참고한 건전성 규제와 일본의 GX 추진전략과 유럽의 InvestEU 프로그램을 참고한 금융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 규제는 단기적으로 Pillar II, 장기적으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Pillar I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지원 정책은 채무보증, 후순위대출 등 위험 분담 구조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월배당 ETF 성장과 보험회사의 과제

조영현(연구위원)

보고서

한국의 ETF 시장은 2020년 이후 급성장했으며, 특히 최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가 은퇴자 등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월배당 ETF는 꾸준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전통적 연금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소비자의 금융투자 경험과 지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변액연금 등을 개선함으로써 '중위험 감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방안

지광운(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보고서

본 보고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그 개선 방안,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기존의 민·상법 규정의 적용 방안,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부수업무화 인정 방안,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원칙의 정립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Chapter 1.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혁신·확장)

###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수요 장기추계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황진태(대구대학교 교수)

보고서

본 연구는 개인 및 기업성 보험을 구분하여 보험산업의 중·장기 수요를 추계하였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과 기후 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2030~2070년의 보험수요 규모도 전망하였다. 보험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 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2060년까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중기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시장 축소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백경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고서

현행 의료법상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쟁점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경계 불분명,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해당 가능성, 의료의 장소적 한계 위반 소지가 대표적이다. 현 제도권 내 해결 방안으로 간호사와의 상담은 의사의 '진단' 영역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사와의 전화 상담이나 특정 의료기관 제휴는 유익이 필요하다. 향후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신설될 경우,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Chapter 2.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리스크관리·지속가능)

### 보험설계사 직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김석영(선임연구위원)

보고서

보험설계사 직업은 높은 자율성과 성과 중심 보상으로 매력적이지만, 청년층의 기피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된 신규 진입자는 중장년층이나 N잡러로, 직업이 전업에서 부업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전문성 약화와 불안전판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 상담 지원이 주목받고 있으며, 설계사는 신뢰 구축을, AI는 상품 설명을 담당하는 협업 모델이 제시된다. 향후 AI 보조, 수수료 개편, 교육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설계사는 신뢰성과 소득 안정성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전문직으로 남을 것이다.



###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전용식(선임연구위원)

보고서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간당 공임의 협의 방식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범퍼 등 외장재가 손상되었을 때 불필요한 교환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시간당 공임 협의방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모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인상을 협의할 필요가 있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법제화를 통해 범퍼 등 외장부품의 교환보다는 수리를 우선하도록 법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 임원보수규제 개선방안 연구

양승현(연구위원)

보고서

경영진의 단기주의 추구 및 과도한 리스크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임원 보수규제가 도입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국내 제도 운영은 형식적 법규 준수에 그치고 입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논의 중인 개선방안을 해외 주요국 사례와 국제적 정합성, 수단 및 강도의 적절성, 지침의 명확성 등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향후 입법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의 평가와 개선방안

이승준(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보고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 중 하나를 대표금융회사로 인위적으로 지정하여 독립 법인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에 비금융 계열회사와 해외법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공시 의무까지 대표금융회사에 부과하여 규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해 비금융회사 등을 제외하여 그룹단위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대표금융 회사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규제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 사이클과 가계부채 결정요인

문제영(연구위원)·황인창(연구위원)

보고서

본 연구는 1998~2024년 장기 자료를 이용해 한국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한국 가계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자산이 주택에 편중돼 있어 금리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가계레버리지는 주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신용공급이 확대되며 증가하였다. 또한 기준금리 충격은 인상기와 인하기에서 가계부채에 비대칭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자산 중심의 자산 재구성, 선제적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DSR·LTV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Chapter 3.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고령화 시대 신탁 활성화를 위한 보험의 역할

김규동(연구위원)

보고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자산관리 및 생활 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현행 제도에서 신탁을 이용하여 노후생활비와 요양비용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들의 보험자산이 신탁재산으로 관리되면서 노후생활비와 요양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천지연(연구위원)·정수진(연구위원)

보고서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손해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연령별 사고 특성과 보험금 지급 차이를 분석하며, 계절·거주지·사고지 일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전체 및 유형별로 살펴본다. 대응 방안으로는 위험운전자 식별을 위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차량 안전장치 지원, 대체 교통수단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제시한다. 아울러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요율 세분화와 안전운전 유도형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보험의 역할

조재일(연구위원)·손재희(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이용과 심리적 의존도 증가는 주요 건강 지표와 사회적 기능 저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디지털 기반 건강 및 사회적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공·사보험 보장은 일부 영역에서 대응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며, 예방 정책 역시 민간 참여 기반이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사보험 보장 범위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정부, 민간 기업 및 보험사의 예방 서비스 설계와 조기 개입 인프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과 개선 방향

이은영(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보고서

국내 고령 인구 및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로 인지취약자의 자산보호와 재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관련 제도를 상대적으로 취약자 신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중·저자산층 인지취약자를 위한 공공신탁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특별부양신탁의 제약 요건 완화, 후견신탁의 실무적 불확실성 해소, 관리형 신탁에 대한 홍보, 판매, 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영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 Chapter 3.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적립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정원석(동아대학교 교수)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세제혜택 및 운용수익률은 낮은 수준이며 이는 연금자산을 유지 및 납입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C형 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와 미국사례를 살펴보고 세제 및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한 퇴직연금과 연금계좌 납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가입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개선 및 랩어카운트 허용 등을 제안하였다.

###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이상우(수석연구원)·강윤지(연구원)

보고서

일본에서는 치매 노인이 배회 중에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 재산을 파손할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고베시는 피해자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책임이 확정되면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질·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 사례는 치매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부담을 통한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Chapter 4. 소비자보호

### 2024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개인정보

변혜원(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손유영(연구원)

보고서

본 연구는 디지털 보험서비스, 보험회사의 정보수집 관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인식 등을 소비자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보험산업의 서비스 혁신과 확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 온라인 서비스 보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와 관리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를 개선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 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 Chapter 4. 소비자보호

### 보험소비자 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장연주(충북대학교 교수)·김민정(충남대학교 교수)

보고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핵심지표, 보조지표, 결과지표로 구성된 보험소비자 신뢰 측정의 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핵심지표는 신뢰의 대상을 보험상품,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제도, 디지털 보험거래로 구분하고 대상별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보조지표는 보험이해력, 보험소비자의 경험 등 신뢰수준의 영향요인을 포함하였으며, 결과 지표는 신규가입의향, 계약유지의향, 추천의향, 소비자만족, 보험에 대한 인식 등 신뢰의 결과적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 Chapter 5.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확대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보고서

서비스제공주택은 일반주택과 요양시설의 중간 단계 주거형태로, 고령화 심화와 경증요양자·고령 1인 가구 증가, 예방적·자기주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퇴원 지연 완화 필요, 비용 대비 효율성, 주거공급 구조 개선 측면에서 확대 필요성이 크다. 이에 ① 서비스제공주택 내 경증요양자 대상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별도 수가 체계 도입, ② 다운사이징 및 자산 활용 지원과 정보·상담 강화, ③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정비와 국가·지자체 지원, 설치·운영 기준 확립, 의무 공급 및 지역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의 종합적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보험부채 평가손익 인식의 재무적 영향 및 30년 국채 선물의 활용

노건엽(연구위원)·최우석(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보고서

보험회사는 부채 만기가 자산보다 길어 금리 변화에 민감하며 부채시가평가 제도 시행으로 ALM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금리파생상품은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헤지 수단으로 국채선물·이자율 스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리파생상품 사용 시 보험부채 대상의 위험회피회계 적용 제약으로 인해 금리 파생상품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30년 국채선물 등 금리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보험부채 대상의 매크로헤지회계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장기금리 정상화, 생산적 금융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Chapter 5. 금융·보험 법제 및 제도개선

### 치매머니 관리 및 돌봄 연계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김규동(연구위원)·홍보배(연구원)

보고서

치매환자 증가 및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치매머니 관리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치매신탁을 활용한 치매환자 재산관리 및 요양서비스 제공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치매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가능재산의 범위 확대, 관리형 신탁의 기준 정비, 재신탁 허용,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 자산유동화, 치매신탁 가입 유인을 위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매신탁을 중심으로 치매보험과 요양서비스가 연계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환경책임보험 효율체계 선진화 연구

권순일(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김연희(연구원)

보고서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의 실제 위험도를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2026년 5월 사업장 실태평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손해보험에 대한 제도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태평가 적용대상 사업장 선정과 효율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함. 또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감독체계 연구

노건엽(연구위원)·이승준(연구위원)·이승주(연구원)

보고서

기후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보험산업은 보험금 지급, 자산운용 성과, 장기부채 평가 등을 통해 이에 노출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는 초기 단계로 스트레스테스트 및 공시 수준이 회사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임. 해외 보험감독당국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해 규정 개정 및 보험회사 대상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국내 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5년 정기간행물

Chapter 1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Chapter 2	CEO Report   CEO Brief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이슈분석)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이슈분석)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Chapter 6	KIRI 영상자료



## Chapter 1.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6년 국내외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2025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1%대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낮은 성장세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는 성장 둔화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택가격·가계부채 부담, 한·미 금리차 등을 감안하면 금리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역갈등 재격화 및 확산,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시장 과열 등 여러 위험 요인으로 인해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2026년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 성장률은 2.3%로, 2025년 예상치(7.4%) 대비 5.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험료 규모는 약 2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감소로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성장세 둔화와 자동차보험의 저성장 지속으로 약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보험계약마진(CSM)은 2025년에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겠지만 2026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CSM 규모는 2025년 64.7조 원, 2026년 64.3조 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3.7%, -0.6%로 추정된다. 손해보험 CSM 규모는 2025년 70.3조 원, 2026년 71.8조 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7.0%, 2.1%로 예상된다. 다만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른 CSM 변동 폭이 상당하여, 향후 계리적 가정 관리가 주요 경영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K-ICS 비율은 2025년에 전년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2026년에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하락, 해지율 및 손해율 상승 등 비우호적 가정 변경이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처럼 급격한 금리 하락은 예상되지 않지만 완만한 금리 하락 흐름 속에서 요구자본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별 위험관리 수준 차이에 따라 K-ICS 비율의 변동 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저금리,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건전성에서 시작해 수익성, 나아가 성장성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4년 건전성 악화에 이어 2025~2026년에는 수익성 저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의 약화는 보험회사의 위험보장 역량과 미래대응 여력을 저하시켜, 성장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Chapter 1.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이와 같은 전망에 따라 2026년 보험산업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경영 대응 과제와 정책 대응 과제로 나눌 수 있다. 경영 대응 측면에서는 적극적 부채관리, 자산운용 고도화, 비용 효율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신계약의 경우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보유계약은 보험회사 간 계약이전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에서는 자산집약적 재보험과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자본관리는 물론 투자수익률 개선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과도한 경쟁이 장래 이익을 훼손하거나 부당 승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지속가능성, 고령사회 대응, 생산적 금융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은 파일럿 단계를 넘어 실질적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활용 영역의 선택뿐만 아니라 신뢰 기반의 안전성 확보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전환금융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투자자 및 보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보험회사 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관련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장 중심 모델을 넘어 건강관리, 요양, 주거, 신탁 등 인접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고령자의 생애 후반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해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수익률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편드를 기반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

천지연(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권순일(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1호 | CEO Brief 제2025-02호

재보험시장은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고령화와 중산층 증가로 인한 보험 수요 변화, 도시화 및 클레임 인플레이션 상승, 자연재해 피해와 보장 격차 확대, 디지털화·AI 도입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험 시장 성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재보험시장은 합산비율 관리 강화, 클레임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손실 증가 등 하드마켓 요인과 자본확충, 거래량 증가, 공급 확대 등의 소프트마켓 요인이 혼재된 전환 국면 속에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

최성일(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2호 | CEO Brief 제2025-03호

최근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프로젝트 2025'에 의거하여 시장 자율 확대를 목표로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드라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 정비와 함께 감독체계와 방식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3호 | CEO Brief 제2025-04호

보험개혁회의의 성과 중 보험회사 이익과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① 지급여력 제도 고도화, ② 보험부채 가정관리 체계화, ③ 재무정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④ 감독회계 합리화, ⑤ 보험부채 관리 활성화로 구분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4호 | CEO Brief 제2025-05호

주거개조와 재가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증가로 서비스제공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 고령자 대상 주택은 시장 자율만으로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① 보조금·세제혜택·용자·부지지원 등과 임대료 상한 연계를 병행하고, ② 주택 다운사이징 연계 세제지원, 다양한 계약방식, 중산층 맞춤형 설계기준을 마련하며, ③ 경증요양자 중심 서비스제공주택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포괄급여 및 별도 수가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과제: 소비자 관점

변혜원(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5호 | CEO Brief 제2025-06호

보험산업의 서비스 혁신과 확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보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가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앱의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소비자 사용 경험을 조사·분석하고 보험앱 사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보험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 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 미래 한국사회 보험의 역할

보험연구원

CEO Report 제2025-06호

2025년 출범한 신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구조적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② 일상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③ 미래 보장 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 등을 추진하여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험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전환

임준(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7호

국내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점유율 중심 경쟁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 및 정책으로 첫째, 규제 완화 중심의 소극적 정책과 함께 R&D 정책과 같은 적극적 정책의 병행을 검토했다. 둘째,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의 원천을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만 국한하지 말고 개도국으로까지 확대한다. 셋째, 아직 시장 초기 단계에 있는 보험의 경우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쟁에서 협쟁(협력과 경쟁의 줄임말)으로 전환한다.

###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김동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8호 | CEO Brief 제2025-11호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을 목표로, ① 보험회사와 영업조직에 대한 유인구조 재설계, ② 판매 책임성 강화, ③ 경쟁·혁신 유도, ④ 시장 인프라 개선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보험회사, 판매자,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업전략 재수립이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제도 영향평가 및 보완조치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보험산업 자산운용 설문조사

황인창(연구위원)·박희우(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09호 | CEO Brief 제2025-12호

부채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산운용 체계도 목표수익 중심에서 부채 현금흐름을 고려한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금리환경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정책 수립에 있어 ALM 고도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수익 간 상충관계 속에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는 자산운용 체계의 고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모형 전반의 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고, 자본관리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황인창(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10호 | CEO Brief 제2025-13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험산업은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위험기반 경영체계 강화, 자산운용 역량 제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보장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개선과제

김동겸(연구위원)

CEO Report 제2025-11호 | CEO Brief 제2025-14호

보험 소비자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공시되고 있으나, 현행 평가지표는 측정 가능성, 비교 가능성, 제도 인지 및 활용도, 정보 제공 수준, 표현의 중립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현행 평가지표를 소비자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를 단순화·입체화하여 소비자가 주요 지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지표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보험경영 주요 이슈

황인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5-01호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5년 보험경영의 주요 이슈는 ① 자본관리역량 강화 및 IFRS 17의 안정적 정착, ② 비용관리를 통한 효율화, ③ 사업모형 혁신을 통한 보험수요 확대 및 신뢰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금리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모집시장에서는 사업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며, 자동차보험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보험시장에 국한된 기존 사업모형을 혁신하여 보험수요를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신정부 보험산업 정책 제언

황인창(연구위원)

CEO Brief 제2025-07호

2025년 출범한 신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구조적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② 일상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③ 미래 보장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 등을 추진하여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현황과 시사점

최성일(연구위원)

CEO Brief 제2025-08호

최근 일본 및 EU 등에 이어 미국이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은행 기업의 발행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적극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저비용 실시간 결제와 Web3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대가 크지만, 금융불안과 자금세탁 리스크의 통제를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실증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발행 규모 및 자금세탁 방지 역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점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5-09호

최근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 선임 비율을 1/4에서 1/3로 확대하였으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합산 3% 룰'을 적용하고,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소송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임원배상책임보험

김동겸(연구위원)

CEO Brief 제2025-10호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로 임원의 법적·재무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기업 경영환경 조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도입 이후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보장구조, 운영의 투명성, 제도 기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상법 개정, ESG 경영 부각, AI 활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회사 차원의 다양한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승현(연구위원)

CEO Brief 제2025-15호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①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고, ② 노동조합의 성립 범위를 넓히며, ③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④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크게 제한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들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관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 검토, 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성 검토,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법리형성·입법과정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CEO Brief 제2025-16호

2025년 11월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빅테크·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사이버 보안 실패가 금융·실물·사회 시스템 전체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시스템적 사이버 사고이다.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시스템적 피해에 대응하여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은 더딘 상황이다.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보험산업, 정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4호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규모가 증가한 가계대출은 높은 대출수요로 인해 리스크 관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분석 결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들은 은행,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연체자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비중 및 다중채무자 비율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의 확산과 보험회사의 대응

조재일(연구위원)·김경선(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5호

소비자의 건강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은 신선식품 중심의 건강한 식재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신체 활동 증가, BMI 및 고혈압 감소, 정신 건강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보험회사는 신선식품 플랫폼과 연계해 건강 식단 구매 내역과 건강지표 개선 정도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플랫폼 및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건강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할 수 있다.

###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 과제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5호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수리를 위한 정비공임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권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차량 특성 및 기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작업시간, 정비공임 이중가격 구조, 수리비 과다 청구 및 삭감의 악순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표준작업시간 개정, 정비공임 이중가격 구조 해소, 분쟁조정기구 설립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사적연금 활성화

강성호(선임연구위원)·오병국(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6호

2024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다. 동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갈등 완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한계가 있어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나, 사적연금 역시 낮은 가입률·수익률·연금화 수준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향후 공적연금은 재정 안정 중심으로 내실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6호

2024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상반기 대비 확대되고 있는데 손해율 악화의 원인은 기후요인 등의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보험금(손해액) 상승세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인배상의 경우 2023년 1월 제도개선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대물배상의 경우 고가차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품비와 공임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험금 증가와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구분하고, 보상 목적의 보험금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영국의 고령자용 서비스제공주택 활성화 논의와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6호

영국은 사회돌봄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서비스제공주택 활성화를 적극 논의하고 있다. 이는 자기주도적 돌봄과 조기개입을 통해 독립적 노화를 지원하려는 정책 원칙에 부합하며, 재가돌봄·요양시설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 재정 압박을 겪는 지방정부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퇴원 지연과 사회적 입원 문제 완화, 고령자의 주거공간 초과 점유 및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 적합 주택 공급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영국의 접근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현황과 과제

천지연(연구위원)·전용식(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7호

국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BaaS)는 배터리 구독(Subscription), 리스(Leasing) 및 사용량 기반 결제(Pay-Per-Use) 등으로 구분된다.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일반적으로 BaaS 이용자들에게 일반 자동차보험과 보상범위가 같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배터리 소유권, 차량가액, 보상담보 등에 따라 보상액이나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BaaS 고유의 쟁점을 점검하고 보험료 산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계약이전을 활용한 보험회사 사업 구조 개편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8호

생명보험회사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수지차는 2022년 이후 2024년 9월 말 현재까지 악화되고 있어 사업 구조 개편의 방안으로 「계약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등 해외 보험회사는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유지, 경영 효율성 제고,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 계약이전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개혁회의」로 인해 이전단위가 판매채널 등으로 세분화되고 심사요건이 합리화되었다. 계약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으므로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이전」을 보험회사 사업 구조 개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보험회사의 인공지능(AI) 도입 전략: 알리안츠(Allianz) 사례 분석

조영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8호

알리안츠에서는 업무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제고, AI 학습·활용 문화 확산, 예방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디지털 역량, 디지털 인프라 등과 같은 보완자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알리안츠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알리안츠는 'AI를 통한 보장격차 해소'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원의 신뢰를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내 보험회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활용과 보험회사 전략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9호

생활환경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의 30~60세 사망 확률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였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을 보장하여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신보험의 계약자는 종신보험의 사망준비금을 연금이나 건강보장의 생존보장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노후 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그에 걸맞는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의 역설과 개선 방안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19호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여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소유규제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실현, 요양 품질, 사업지속성 및 주거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사모펀드의 요양사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0호

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시 요양서비스가 금융자본의 투자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영미 사례에서 나타난 사모펀드 소유 시설의 부실은 임차 구조 자체보다 조기 자금 회수와 수익 극대화 전략, 그리고 관리·감독 부재에서 기인한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투명성과 공공 감시 강화, 비요양비용 통제, 소유-운영 분리로 인한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2024년 생명보험산업 주요 현황 및 이슈

황인창(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1호

2024년 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현황과 이슈를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24년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113조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5.6조 원으로, 투자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24년 말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183%로 전년 말 대비 26%p 하락하였다. 향후 건전성 관리,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시사점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1호

개인용 국채 제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조달하는 제도로, 투자 기반 다각화, 금융 포용성 확대, 저축 장려 및 저축 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하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개인 투자 국채 시장이 2020년 이후 다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수요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판매채널 및 만기·금리 구조를 다양화하여 개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2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개정되었으나 한방병원의 입원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방병원 입원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병실 구조 및 운영 방식 변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 부재, 제도 개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 등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입원 유도는 입원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로 이어져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2024년 손해보험산업 주요 현황 및 이슈

황인창(연구위원)·최원(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2호

2024년 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2024년 손해보험산업의 원수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장기손해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에 힘입어 전년 대비 4% 증가한 105.3조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8.5조 원으로, 투자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24년 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은 203%로 전년 말 대비 19%p 하락하였다. 향후 건전성 및 보험손익 관리,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치, 보험회사 인수 및 합병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한 합리적 개인연금 수급 방안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3호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여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형의 연금유형이 존재한다. 2014~2023년 동안 60세 이상 사망자 중 90세 이상 사망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남자는 9.7%, 여자는 28.2%이나 대부분 100세 이전에 사망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소득원과 연금유형을 전략적으로 조합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개선방향

황인창(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4호

소비자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투자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내 규제는 보험회사의 특정 자산운용 방식 등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운용 비율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환경 변화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반영해 자산운용 비율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였다. 우리나라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를 기존의 사전적·정량적 통제 중심에서 사후적·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①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5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내 고령층 자산이 상속 동기가 강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신탁 설정에 활용 가능한 자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중고령층이 적극 이용하는 민영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정액형 보험금청구권을 생활비·간병비 재원으로 구조화할 경우 공적 돌봄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6호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치료기간 8주 초과 시 공적기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장기 치료 여부에 대한 공적기구의 판단은 2023년 「경상환자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경상환자 상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치료와 보험금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등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과 보험수요

권순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7호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과 보험수요는 기업규모와 산업구조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유럽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은 화재 및 재물보험 중심의 보험가입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리스크 인식과 평가 능력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대부분의 계약이 대면채널을 통해 체결되는 등 차별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요국 자동차보험정비 표준작업시간 현황과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8호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의 합리성과 타당성, 정비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 확대로 2018년 공표된 표준작업시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준작업시간의 45%가 수리 준비 및 정비사 휴식 시간인데 이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차량 제조사의 표준작업시간 공개 관련 규정 미비로 차량 제조사의 수리 정보가 표준작업시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제조사의 수리 정보가 공개된 주요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차량 제조사의 정보 반영 및 축적된 수리 데이터에 근거한 표준작업시간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의 효과적 운용

최성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29호

벤처캐피털시장 보안을 위해 도입된 정책펀드가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함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모태펀드 방식을 기반으로 하되, 전략산업의 경제 외부성을 감안하여 정부 관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정부가 일정 손실을 우선 부담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해 연기금과 금융회사의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보험회사의 역할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0호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재택 고령자의 복합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재가요양 서비스의 공백은 비공식 돌봄 의존을 확대하고 가족돌봄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조직 역량 차이는 재가서비스 공급망 격차와 지역 간 접근성·품질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보험회사는 비급여 재가서비스 보장과 일·돌봄 양립 지원 상품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통합돌봄 인프라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대기오염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재구성

조재일(연구위원)·김경선(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0호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며 대기오염이 계절적 공중보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고, 연구들은 미세먼지 증가가 우울증·수면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 상승과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행 대응 체계는 신체적 위험 중심으로 정신 건강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 건강 위험을 고려한 보장 구조와 예방 중심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 자동차수리비 상승에 대한 주요국 자동차보험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1호

2022년 이후 높아진 물가상승률, 자동차수리비 등으로 2024년 이후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의 흑자가 감소하고 있다.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상승에 대해 주요국 자동차보험산업의 대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수리 관행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상되었고 수리기간 단축 및 효율화, 교환보다는 수리, 부품·정비업체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수리비는 2030년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최근 보험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

###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1호

장기요양위험에 대한 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요양 퍼즐'이 보여주듯, 장기요양 발생 가능성·비용·공적 보장 범위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은 대비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도(Literacy)가 형성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고령자뿐 아니라 성인 전반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 진단과 체계적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사적 대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 가능성

강성호(선임연구위원)·김혜란(연구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2호

우리나라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이 높아 주택연금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3년 고령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2.5%이고, 민간 역모기지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비활성화는 인식 부족과 상속 선호 등 수요·제도적 요인과 시장 미성숙, 주택가격 변동 위험 등 공급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민간 주도형 구조로 사적연금 연계와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규제 개선과 인식 제고,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활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첨단재생의료 치료 도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경선(연구위원)·조재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3호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시행으로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재생의료가 임상진료에서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존 유사 비급여에서 나타난 병원 간 가격 편차와 보험금 청구 급증 사례를 고려할 때, 첨단재생의료 역시 고가로 형성되어 환자 접근성 저하와 실손보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난치질환' 범위가 모호해 상업적·미용적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적정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치료 필요성과 효과에 따른 급여 적용 확대, 대상자 범위의 구체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전용식(선임연구위원)·천지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3호

2017년 이후 폭염일수, 강설일수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수들과 자동차 보험 손해율, 담보별 사고발생률, 그리고 사고심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파일수와 강설일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 한파·강설은 과실비율 분쟁, 사고발생 확률과 사망사고 증가 등 사고심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선별적인(예를 들면 상업용 차량, 대형차량, 친환경 차량, 강설빈도가 높은 지역 등) 원터타이어 장착 의무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 해외투자 동향 및 영향 요인

황인창(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4호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은 2010년대 초반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9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보험회사의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투자매력도로,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해외투자 유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위험관리에 대한 유연성 제고 등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K-ICS 체계에서는 부채평가 할인율이 하락할수록 장기국채 매입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외투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

### 보험설계사 고령화와 시사점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4호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는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에는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연령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 근속자 증가와 고령 신규 설계사의 유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신규 설계사 시험 응시자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고령 설계사는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이에 보험회사는 시를 활용한 판매 지원으로 고령 설계사의 정착과 불완전판매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Chapter 3. KIRI 리포트(포커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5호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보통신·디지털 플랫폼 등 사회 인프라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사이버 보안 실패가 금융·실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사이버보험 수요를 확대시켰으나, 누적위험 증가로 보험 인수 역량은 제약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과징금 대비 배상책임이 낮아 보험 가입 유인이 제한적이므로, 전사적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공시·징벌적 배상·사이버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일본의 비급여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송윤아(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5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자체 중심의 재가돌봄 체계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고령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 이탈 문제가 우려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비급여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복지와 산업이 상생하는 ‘산복공창’ 모델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역시 재가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급여 확대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민간 협력 모델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 및 진단

천지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6호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2025년 3/4분기 말 기준 손해율은 85.8%로 전년동기 대비 4.5%p 상승하였으며, 경과보험료와 발생손해액 모두 손해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과보험료 측면에서는 보험가입대수가 손해율을 일부 완화한 반면, 대당경과보험료는 손해율 상승을 유도하였다. 발생손해액에서는 인적담보보다 물적담보의 손해율 상승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고발생률보다 사고심도의 영향이 더 컸다.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적담보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이은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포커스) 제636호

국내 인지취약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후견제도에 비해 이들의 재산관리와 보호에 효과적인 신탁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현재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과 ‘후견신탁’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특별부양신탁의 원본 인출 규제를 사후 감독 강화를 전제로 완화하고, 지자체 지원 및 전문 공공후견인 공급 확대를 통해 후견신탁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저자산층 인지취약자를 위한 공공신탁 확대, 전문 인력 육성, 대중 인식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①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금융시장분석실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3호

###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② IFRS17 및 K-ICS

금융제도연구실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3호

###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③ 판매채널 및 보험상품

보험산업연구실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3호

###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④ 디지털 혁신 및 소비자보호

소비자·디지털연구실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3호

###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 및 전망

문제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4호

### 건강보험 혼합진료에 나타난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합리화 필요성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4호

### 자연재해 위험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천지연(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5호

### 지수형 보험 관련 이슈 및 산업의 대응 방향

권순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5호

### 호주의 모집수수료제도 개편 경과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6호

### 딥시크(DeepSeek) 등장과 보험회사 디지털 전환

조영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6호

###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와 시사점

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7호

### 보험회사 자산운용 성과 지표로서 운용자산이익률 검토

박희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8호

### 건설 현장 화재 위험과 건설공사보험 개선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8호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권순일(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9호

###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9호

### 체류 외국인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19호

### 주요국 기후 관련 국가소송 동향과 시사점

이승준(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0호

### ‘월드컵 아이들’ 사례에서 배우는 보험 전략

조재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0호

### 일본의 치매정책 발전과 시사점

손재희(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1호

### 사이버 리스크 실태와 과제

권순일(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2호

### IFRS17과 보험계리사 시험

노건엽(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2호

###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김해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3호

### 1차 관세 전쟁 이후 주요국의 경제 규모 변화와 시사점

이태열(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3호

###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문제영(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4호

### 보험산업 판매인력 증가 현상과 과제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4호

###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와 대응 과제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4호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란과 보험산업의 대응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5호

###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③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통합 상호협정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5호

###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권순일(연구위원)·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6호

### 해외 지급여력제도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와 시사점

노건엽(연구위원)·이승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6호

###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제고 방안

김규동(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6호

### 보험회사 자금차입 유연화 필요성 검토

문제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7호

### 기후테크와 보험의 역할

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7호

### 청년층 수요변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천지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8호

### 보험회사 지속가능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동향

박희우(연구위원)·강윤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8호

### 호주 퇴직연금의 보장성보험 편입 사례와 시사점

강성호(선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8호

###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산업 인력 수급

김석영(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29호

###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천지연(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0호

### 생산적 금융과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도전 과제

김해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1호



## Chapter 3. KIRI 리포트(이슈분석)

### 주요국 위고비 등 신약의 공·사보험 적용과 과제

김진역(수석연구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2호

###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시사점

문제영(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2호

### 의료보험금 청구 심사 자동화

조재일(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3호

### 일본의 보험대리점 규제 강화와 시사점

김동겸(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4호

### 보험산업 특허 동향 및 시사점

임준(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5호

### 사회재난과 시민안전보험

한진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5호

###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수정(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6호

### 주요국 자동차보험 시간당 공임 협의 체계와 시사점

전용식(선임연구위원) KIRI 리포트(이슈분석) 제636호



##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 인공지능 기본법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3호

인공지능 규제법이 체계화·구체화 됨에 따라 보험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인공지능 개발·이용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었다. 보험회사도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인공지능 기본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회사들은 인공지능 규제법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4호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에서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 해석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보험업법상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의 자산거래 금지 규제에 관련해 상세 요건이 다투어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 점에서 이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보험의 정책과제: 인구·기후·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5호

인구, 기후,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인구) 고령자 운전 역량 보완 장치 보급 지원을 위한 보험료 할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위해, 보험료 및 보상 기준 합리화, 퍼스널 모빌리티(PM) 보험제도 마련, 플랫폼 기반 유상 카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책임 및 보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 체계에 준하는 피지킬 시 사고 피해자 구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양승현(연구위원)

KIRI 보험법리뷰(포커스) 제36호

2025년 7월 대법원에서 보험회사와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신입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위임계약 관계에서 필요하거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를 넘은 지휘·감독의 존재, 즉, 구체적 업무·근태 지시, 인성·소통·회사정책 참여 등 실적과 무관한 정성적 요소의 평가 반영 등 교육 담당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소들을 판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Chapter 4. KIRI 보험법리뷰(이슈분석)

---

### 제22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양승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3호

---

###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 유럽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황현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4호

---

### 암보험약관 설명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황현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5호

---

###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황현아(연구위원)

보험법리뷰(이슈분석) 제36호

---



##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 해외보험리포트: 영국편

임석희(연구원)·정수진(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5.01.14.

영상자료: 현대보험의 기원이자 국제금융 중심지인 영국의 현재 보험시장은?

유튜브 업로드: 2025.03.20.



영국은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과 생명과학, 항공우주, IT 등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2023년 기준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다. 런던 금융시장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금융시장의 하나로 금융업은 부가가치, 세금 등 여러 측면에서 영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영국 보험시장은 2023년 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9.7%, 약 4,759미국 달러이다. 전체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63%로, 이 중 연금(퇴직·개인) 상품이 거의 대부분(90%)을 차지한다.

### 해외보험리포트: 독일편

강윤지(연구원)·이승주(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5.02.25.

영상자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 독일의 보험시장은 어떻게?

유튜브 업로드: 2025.05.11.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경기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산업은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을 기반으로 Solvency II 등 EU 규제를 반영하며 ESG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독일 보험시장은 세계 6위 규모로 보험침투도 5.5%, 보험밀도 2,910달러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은 성장 둔화와 함께 연금보험 중심의 구조이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재물보험 비중이 높고 낮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며, 재보험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 해외보험리포트: 대만편

이소양(연구원)·김윤지(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5.04.28.

영상자료: 반도체의 나라 대만, 보험산업도 첨단일까?

유튜브 업로드: 2025.06.19.



대만은 반도체 수출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기반 위에서 AI 등 미래산업으로 빠르게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대만 보험산업은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의 일원화된 관리하에 IFRS17 등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왔다. 2023년 기준 세계 14위인 대만 보험시장은 높은 수준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를 기록 중이나,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부문 원수보험료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축인 생명보험 부문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보험료 기준 전체 시장 규모는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 Chapter 5. 해외보험리포트

### 해외보험리포트: 일본편

김연희(연구원)·손유영(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5.07.01.

영상자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보험산업의 현주소는?

유튜브 업로드: 2025.07.31.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일본은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동시에 고령화를 세계 1위 국가로,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특히 크다. 2023년 일본 보험산업의 보험료 수입은 약 3,600억 달러로 글로벌 보험시장의 약 5%를 차지하며 규모 기준 4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경기 회복, 친환경 정책 강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엔저와 물가 상승, 내수 중심 구조, 저출산·고령화, 자연재해 취약성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고령 인구 특성에 맞춘 생명보험·장기요양보험·연금 상품의 성장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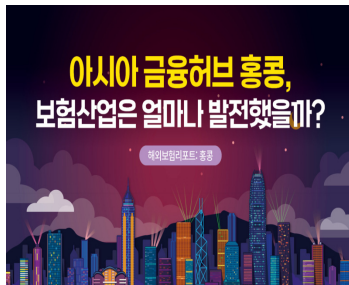
### 해외보험리포트: 홍콩(부록: 마카오)편

김혜란(연구원)·홍보배(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5.09.09.

영상자료: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 보험산업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유튜브 업로드: 2025.10.29.



홍콩 보험시장은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으로, 높은 보험침투도와 밀도를 기반으로 생명보험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홍콩 보험 시장에는 자국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다국적 보험그룹의 지점 및 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소폭 축소된 모습을 나타낸 이후 최근 회복 중이며, 향후 중국 본토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회가 기대된다.

### 해외보험리포트: 싱가포르편

강윤지(연구원)·김가현(연구원)

홈페이지 업로드: 2025.11.04.

영상자료: 아시아 금융 전통의 강자 싱가포르, 보험시장은 어떻게?

유튜브 업로드: 2025.12.18.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중계무역 기반의 개방경제, 세계적 항만·공항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교역 및 금융 허브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 허브로서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디지털 토큰 관련 규율 시행 등 신종 금융 리스크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진입 장벽이 낮은 싱가포르의 보험시장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손해보험시장은 재보험, 캡티브 보험시장이 발달하여 역외 시장의 비중이 매우 크며, 202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Chapter 6. KIRI 영상자료

### 전자금융업 개편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손재희(연구위원) | KIRI의 서재

유튜브 업로드: 2025.04.1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금융업 개편으로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 비금융기업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데이터 활용사업의 확장,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의 확대, B2B 및 기관 대상 서비스의 다양화가 예상되며, 보험 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전자지급결제업을 활용한 고객 접점 확보와 새로운 고객경험 제공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송윤아(연구위원) | CEO Report

유튜브 업로드: 2025.04.17.



일본은 민간 참여 확대, 정부 재정·세제 지원, 토지·건물 임대차 허용, 개호 보험 수입 기반, 리츠 활용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했다. 이는 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정책 지원, ② 임대차·리츠 활용 시 입주자·투자자 보호 강화, ③ 입주자의 다수가 요양수급자임을 전제로 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와 정책 대응

천지연(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5.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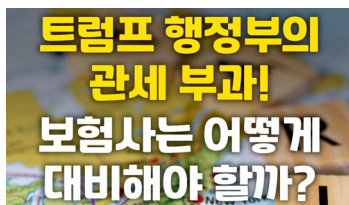


최근 음주운전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관련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미국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보험산업

문제영(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쇼츠)

유튜브 업로드: 2025.07.10.



미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보험산업 또한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손해보험업은 원가상승과 손해율 악화 위험에, 생명보험업은 저성장·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저하와 지급여력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고관세 대상 산업과 환율·금리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수심사 기준과 요율 체계를 재정비하며, 자산운용 전략 전반의 리스크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세대갈등? 세대공감! 국민연금 이야기(1부)

강성호(선임연구위원)·문제영(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5.08.26.



2025년 3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개정되었으나, 재정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도의 복지적 성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후세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국가지급보장을 통해 수급권은 확보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제도적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 세대갈등? 세대공감! 국민연금 이야기(2부)

강성호(선임연구위원)·문제영(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5.09.18.



연금제도 개혁은 이해관계가 상이한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구조적 특성상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은 부족하지만 큰 의의를 지닌다. 개혁 과정에서 논의된 자동조정장치는 제도 성숙 국가에 적용될 수 있어 이번 개혁에서 제외되었다. 궁극적으로 연금제도의 안정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개혁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세대갈등? 세대공감! 국민연금 이야기(3부)

강성호(선임연구위원)·문제영(연구위원)·김가현(연구위원)·이소양(연구위원)·홍보배(연구위원) | 보험이 보연? 유튜브 업로드: 2025.10.22.



2030세대가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급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부예외 기간을 점검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도 구조적 특성으로 후세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연금은 복지적 제도여서 절대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나친 세대 간 비교 평가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 IV

2025  
연차보고서

## 2025년 대외활동

- Chapter 1 KIRI 세미나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Chapter 3 KIRI 보험법세미나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Chapter 1. KIRI 세미나

###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영향, 보험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발전 방안은?」

KIRI 공동국제세미나(포항공과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 공동주최)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 16.(목) 10:00~17:00, 한경협화관 다이아몬드홀(3F)
- 좌장 : 김준(연세대학교 교수)
- 기조연설 : Maryam Golnaraghi(제네바 어소시에이션 실장)
- 발표(1부) : 백천우(코리안리 박사), 김경선(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황재혁(금융감독원 박사)
- 발표(2부) :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최용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동휘(고려대학교 교수), Ruediger Kiesel(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 Runhuan Feng(칭화대학교&일리노이대학교 교수)

###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2. 17.(월) 15:00~16:50, 한경협화관 에메랄드홀(3F)
- 발표 : 노건엽(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장덕조(서강대학교 교수)
- 좌장 :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 토론 : 권병근(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권홍(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천승환(생명보험협회 본부장), 한상용(금융연구원 실장), 한승엽(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The Future of the Asset Management Market」

KIRI 공동조찬세미나(AIF APAC 공동주최)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3. 11.(화) 07:15~08:40, 더플라자호텔 오키드홀(4F)
- 대담주제 : Retirement Savings Through a Safe Yield Strategy
- 발표 : Marc Rowan(CEO of Apollo Global Management)
- 좌장 : 정삼영(AIF APAC 총괄고문·연세대학교 교수)



## Chapter 1. KIRI 세미나

### 『초고령사회, 치매와 보험의 역할』

KIRI 공동세미나(생명보험협회·RMI보험경영연구소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5. 6. 26.(목) 14:00~17:30,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3F)
- 발표 : 류재광(일본간다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명중(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류건식(RMI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좌장 : 이봉주(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김계완(교보생명 팀장), 김규동(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철웅(한양대학교 교수), 지광운(국립군산대학교 교수), 황기현(금융감독원 팀장)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8. 20(수) 15:00~16:4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김경렬(K파트너스 변호사), 전용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좌장 : 유주선(강남대학교 교수)
- 토론 : 김관희(보험개발원 실장), 김덕호(가천대학교 교수), 김성구(법무법인세걸 변호사), 이재웅(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주병권(손해보험협회 부장)

### 『보험감독과 연금정책의 과제와 대안』

KIRI 공동학술회(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한국연금학회·한국보험법학회·한국보험계리사회·국민연금연구원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5. 8. 21.(목) 14:00~2025. 8. 22.(금) 12:00, 곤지암리조트
- 기획주제 : 강성호(토론)
- 세션 I 보험경제경영 : 김석영(발표, 토론), 조재일(토론)
- 세션III 연금 : 강성호(발표, 토론), 이소양(발표)
- 세션IV 보험계리 : 김규동(토론)
- 세션V 건강보험 : 조재린(토론), 김경선(토론)
- 세션VI 기후ESG : 조재일(발표), 한진현(발표), 이승준(토론)



## Chapter 1. KIRI 세미나

###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KIRI 공동세미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5. 8. 25.(월) 14:00~16: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F)
- 발표 : 이승준(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안윤기(포스코 경영연구원 상무), 정광민(포항공과대학교 교수)
- 좌장 : 최용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 최영화(삼성화재 소장), 곽훈(한국화재보험협회 팀장), 김영욱(코리안리차장), 김도균(손해보험협회 부장), 유재은(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김연지(경기도청 과장), 최덕환(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 : 2025. 10. 21.(화) 07:20~08:40
- 장소 : 콘래드호텔 스튜디오1+2+3홀(6F)
- 발표 1 : 2025년 보험산업 전망  
황인창(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
- 발표 2 : 2025년 보험산업 과제  
노건엽(보험연구원 금융제도분석실장)

### 「SI와 보험산업의 미래」

KIRI 공동세미나(서울대학교 경영대학·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공동주최)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1. 6.(목) 14:00~16:2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센터(12F)
- 발표 : 박소정(서울대학교 교수), 한소원(서울대학교 교수)  
변혜원(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석승훈(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신위뢰(전남대학교 교수), 이정민(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홍지민(숭실대학교 교수)



## Chapter 1. KIRI 세미나

### 「보험사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국채선물 활성화 과제」

KIRI 공동세미나(한국거래소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5. 11. 6.(목) 15:00~17:00, 한국거래소 마켓스퀘어 IR센터(1F)
- 발표 : 전주현(삼성생명 프로), 노건엽(보험연구원 실장)
- 좌장 : 김기동(한국거래소 부장)
- 토론 : 권용우(회계기준원 팀장), 김민규(교보생명 차장), 정한솔(메리츠증권 상무보), 허태오(삼성선물 수석연구위원)

### 「보험사 자산운용의 다음챕터: 스마트운용과 효율의 시대」

KIRI 공동세미나(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



- 일시·장소 : 2025. 11. 26.(수) 09:00~15:30, 콘래드호텔 파크볼룸(5F)
- 기 조 연 설 : 팀 커렐(에이온 투자자문 총괄)
- 강연(오전) : 박희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쿤잉 관(세레스라이프 수석계리사), 노영후(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좌장(오전) : 성주호(경희대학교 교수)
- 강연(오후) : 크리스 츠위(CVC 보험솔루션 APAC 총괄이사), 헤르랄트 반 쿨릭(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재무 및 계리 최고 책임자), 민 그룬트비그 우(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선임 리스크 매니저)
- 좌장(오후) : 김헌수(순천향대학교 교수)

### 「시와 보험 공존을 위한 방안」

코리아핀테크위크 2025 보험세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1. 28.(금) 14:30~15:30,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1F)
- 발표 : Lettie sin(Vice President of Strategy at AIFT), 유승재(페르소나시 대표)
- 좌장 : 박소정(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신훈철(DB Inc 담당), 이동욱(삼성화재 AI혁신파트장), 조재일(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Chapter 1. KIRI 세미나

###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KIRI 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2. 8.(월) 14:00~16:00,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B2F)
- 발표 : 김진현(서울대학교 교수), 김경선(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좌장 : 김은경(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토론 : 권병근(손해보험협회 이사), 권정현(KDI 연구위원),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유재은(스페셜스페이스 대표)  
임학빈(DB손해보험 본부장), 전현욱(금융감독원 팀장)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2025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행사명 : 제55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 23.(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 발표 : 정희섭(한국은행 투자운용부 부장)
- 토론 :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박희우(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DB자산운용 상무보)

### 「Fixing Shadow Insurance」

행사명 : 제56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2. 27.(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광민(POSTECH 교수)
- 발표 : 윤지연(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 : 권승수(코리안리재보험 상무), 김석영(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인재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감독 이슈」

행사명 : 제57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3. 21.(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 발표 : 김현중(금융감독원 팀장)
- 토론 : 권병근(손해보험협회 이사), 박순근(생명보험협회 상무), 홍윤기(보험개발원 팀장)

### 「일본 생명보험사의 판매채널과 상품의 진화」

행사명 : 제58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4. 25.(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 원형규(교보다솜케어 대표이사)
- 토론 : 류성경(동서대학교 교수), 이은영(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하(신한라이프 팀장)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글로벌 보험그룹의 조직 구조와 복잡성』

행사명 : 제59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6. 2.(월)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 Anastasia Kartasheva(University of St. Gallen)
- 토론 : 민세진(동국대학교 교수), 박소정(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준(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디지털 보험시장』

행사명 : 제60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6. 19.(목)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정광민(POSTECH 교수)
- 발표 : 김영석(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대표이사)
- 토론 : 박소정(서울대학교 교수), 손재희(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환(신한EZ손해보험 단장)

### 『KiRi 제61회 산학세미나 개최』

행사명 : 제61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7. 14.(월) 14:30~17:30, 신라스테이 해운대 3층 볼룸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 주제1 「보험산업 미래 경쟁력」 김해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2 「보험산업 정책과제」 조재린(보험연구원 부원장), 주제3 「IFRS17 도입 경과와 향후 과제」 노건엽(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장)
- 토론 : 참석자 전원

### 『보험산업과 신탁』

행사명 : 제62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9. 26.(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이경희(상명대학교 교수)
- 발표 : 김계원(교보생명 팀장)
- 토론 : 김규동(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문재규(하나은행 팀장), 박민선(손해보험협회 팀장)



## Chapter 2. KIRI 산학세미나

###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수형 보험』

행사명 : 제63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0. 24.(금) 14:00~15: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 Wenjun Zh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토론 : 김석영(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천우(코리안리 CAT모델링파트 박사), 정광민(POSTECH 교수)

### 『자본주의: 위험과 보험의 시각』

행사명 : 제64회 KIRI 산학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11. 28.(금) 14:00~16:0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화상 세미나(ZOOM) 병행
- 좌장 : 김현수(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 석승훈(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 김해식(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지홍(밀리만코리아 대표), 정세창(홍익대학교 교수), 최유심(한국신용정보원 원장)



## Chapter 3. KIRI 보험법세미나

### 『보험회사 임원 보수규제 개선방안』

행사명 : 제14회 KIRI 보험법세미나 | 주관행사

- 일시·장소 : 2025. 6. 12.(목) 15:00~16:30,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12F)
- 좌장 : 황현아(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 실장)
- 발표 : 양승현(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 연구위원)
- 토론 : 김영은(손해보험협회 법무팀 변호사), 백재호(감정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정명(생명보험협회 법무지원팀 변호사)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1 학술지 『보험금융연구』 발간

『보험금융연구』는 1990년 8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월에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6년 1월부터는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 학술지는 보험 및 금융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발간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순수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연구논문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보험금융연구』는 연간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되며,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회는 성주호 편집위원장(경희대 교수)을 비롯한 국내외 보험·금융 전공 교수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연구원에서는 한진현 연구위원이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을 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금융연구 제36권 제1호(2025년 2월)

제목	저자
민간의료보험 유지기간에 관한 연구: 다수준 생존분석의 활용	민인식
COVID 19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적립금 운용지시 분석	정원석, 이경희, 김혜성
사외이사의 직업적 경력이 보험회사 금융안정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상용, 박희우
소액주주 의결권이 내·외부감시기구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박범진

#### 보험금융연구 제36권 제2호(2025년 5월)

제목	저자
보험산업과 경제성장 간의 실증적 관계에 대한 연구: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황진태, 서대교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가입의향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최경진, 전희주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이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엄경식, 강상구
생명보험산업의 경쟁과 효율성	변희섭

#### 보험금융연구 제36권 제3호(2025년 8월)

제목	저자
민영건강보험의 사후적 역선택에 대한 실증연구	김대환, 강지윤, 이예인, 남기훈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과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업법상 역외보험 규제	오정현
노후 위험 인지도 기반 개인연금 가입결정 고가망 예측모형 개발	김태진, 양성병, 전희주
국민연금의 액티브 투자전략 성과	우민철

#### 보험금융연구 제36권 제4호(2025년 11월)

제목	저자
Janus on the Roads: Extreme Temperature and Traffic Accidents	Dirk Bethmann, 조재일, 김경선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광재, 정동혁, 이상진
The Impact of Market Concentration on Financial Stability in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한상용, 문혜정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가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박범진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2 작업반/회의 참여

정책 및 감독당국,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개혁회의 작업반을 비롯한 각종 작업반 활동, 자료 제공,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적이고 경영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 각종 작업반/회의

작업반·회의 명	주최	
보험개혁회의 TF	신회계제도반	금융위원회
	미래대비반	
	사망보험금융동화 상품개발반	
	판매채널반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개선 TF	금융위원회	
보험금융서비스 TF	금융위원회	
금소법상 제재(광고규제, 과징금) TF	금융위원회	
금융통상 대응 TF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운용규제 합리화 TF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운용규제 합리화 TF(생산적 금융 실무반)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건전성 TF(부채평가기준 실무반)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건전성 TF(ALM 관리 강화 실무반)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총괄 TF	금융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실무 TF	금융감독원	
K-ICS 내부모형 도입준비 TF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운영리스크 관리강화 TF	금융감독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TF	고용노동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TF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3 위원회/포럼/패널/자문 참여

국회, 정책 및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자문단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포럼, 패널, 자문 등에 참여하여 금융·보험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 정책(감독)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경영예산심의회	금융위원회
공적심사 &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옵브즈만 위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판매채널 자문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체포상심사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채권정리위원회(전원위원회)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소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국토교통부
민·관 드론보험협의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미래포럼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협의체	환경부
공제분쟁심의위원회	해양수산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경기도청
위험관리분과위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우정사업본부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기타 기관 위원회

위원회 명	주최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금융개발원 비상임이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재정운용위원회	식약처
보험정보망 운영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위원회	보험개발원
리스크관리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연금심의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영위험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통계검증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건설공제
ICT 국민 점검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주 보험 제도 개선 연구 자문위원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시장리스크위원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Chapter 4. 학술 및 기타 대외활동

### 4 언론기고

#### 2025년 1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2025년 보험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변화의 대응	한국보험신문	최원
만수무강과 보험	헤럴드경제	김석영
이제는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	한국경제신문	원장
기후변화 시대, 보험의 역할	이데일리	원장
보험도 혁신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원장
보험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헤럴드경제	부원장
금리 변동성 시대의 보험회사 자본관리	보험신보	노건엽

#### 2025년 2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혁신 위한 경쟁 절실한 보험산업	서울경제	원장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한 다양성의 중요성	아주경제	황인창
장애인 고용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여는 일	국민일보	원장
기후위기 시대와 정책성 보험의 역할	매일경제	원장
양보다 질, 보험자본관리 기준의 변화	아시아투데이	노건엽
연금과 노동의 조화, 세대 통합의 시작점 되어야	헤럴드경제	강성호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의 과제	이데일리	원장
보험산업, 밸런스가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	원장
보험 수수료 개편과 신뢰구조	머니투데이	원장
보험 유통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험신문	김동겸

#### 2025년 3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쉽지 않은 연금 인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헤럴드경제	이태열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재설계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원장
보험 경영, 판이 바뀌다	매일경제	원장
초고령사회, 안전 위해 제도·보험 동행 필요	아주경제	천지연
기술 발전과 보험	헤럴드경제	부원장

#### 2025년 4분기

주제	언론사	기고자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보험을 위한 과제: 작동하는 구조의 구축	아시아투데이	손재희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산업 신뢰도	헤럴드경제	전용식
기후 리스크와 보험사의 대응	보험신보	이승준



2025  
연차보고서

# 2025년 일반현황

- Chapter 1 경영비전
- Chapter 2 연혁
- Chapter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Chapter 1. 경영비전

본원은 보험을 중심으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실천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세계화·융합화·검업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금융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금융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 Chapter 2. 연혁

2008년 2월 26일 개원한 이후 2008년을 금융권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2010년 11월 26일에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6대 안철경 원장 취임 이후에는 보험산업의 장기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연구 외에도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핵심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에 걸맞은 유연한 고용 및 성과시스템 아래 유능한 연구인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연구직군에 대해서 엄격한 실적평가를 통한 재임용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직군과 행정직군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연구기관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 금융산업의 검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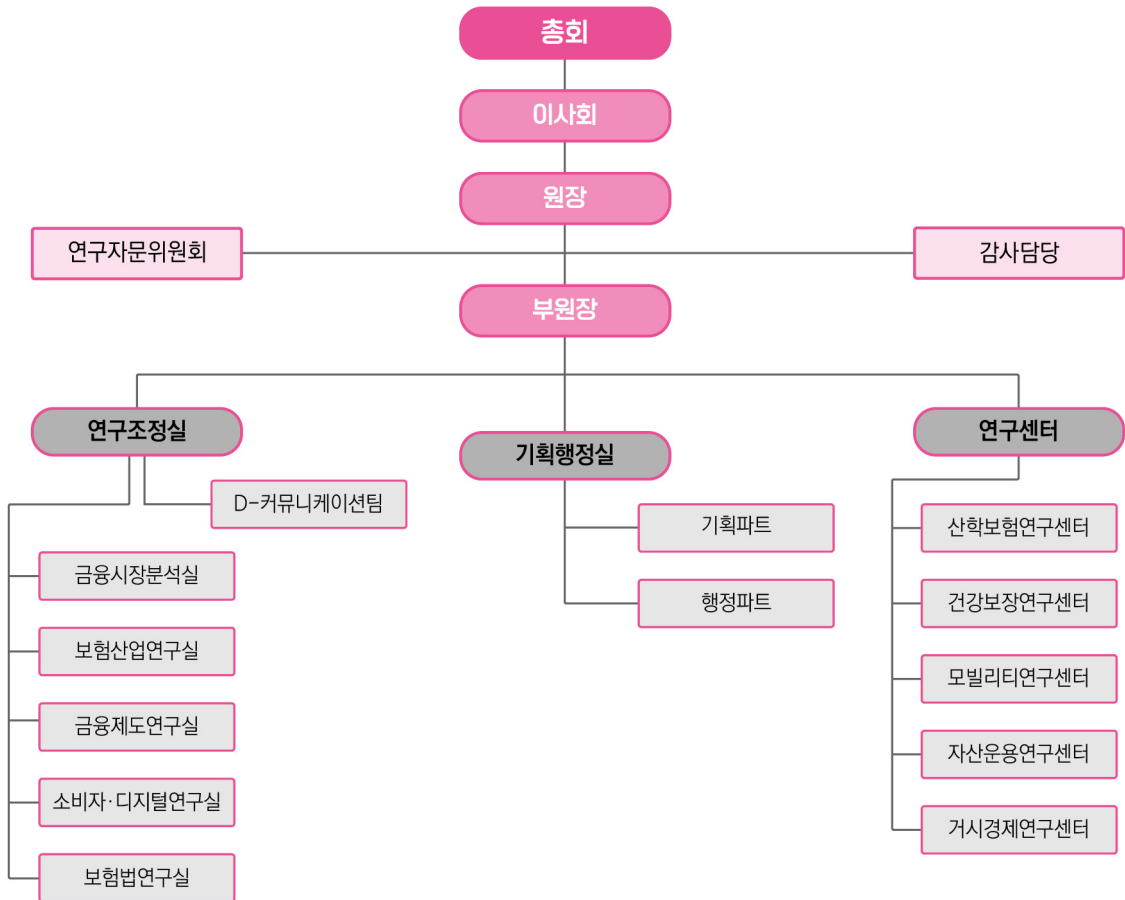
### 보험연구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내용
1995년 9월	보험연구소 설치
1996년 9월	인터넷 문헌정보 서비스 개시
1999년 9월	보험개발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
2004년 7월	제1회 국제세미나 개최
2006년 1월	보험개발연구, 등재학술지로 선정
2007년 12월	보험연구원 설립 금감위 승인
2008년 2월	보험연구원 개원, 초대 나동민 보험연구원장 취임
2009년 2월	보험개발연구, 보험금융연구로 제호 변경
2010년 4월	2대 김대식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0년 11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2013년 4월	3대 강호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6년 4월	4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 취임
2019년 4월	5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2021년 12월	제16회 대산보험대상 수상
2023년 1월	6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취임



## Chapter 3. 조직도 및 관련 위원회

### 1 조직도



### 2 총회

일반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 12월 말 현재 생명보험회사 21개 사, 손해보험회사 17개 사가 사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총회는 안건 발생 시 의장이 소집한다. 2025년에는 정기총회와 총 6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 3 이사회

보험연구원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보험연구원의 연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기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장 2인), 원장, 사원대표이사(생명보험대표 5인, 손해보험 대표 5인)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에는 2025년 2월 제1차 이사회를 시작으로 총 3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 4 연구자문위원회

보험연구원은 연구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보험·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연구자문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된다. 2019년부터는 연구자문위원회를 연구사업계획과 운영을 자문하는 ‘연구분과’와 보험산업 및 연구원 발전방향을 자문하는 ‘발전분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2025년 11월에 연구분과회의와 발전분과 회의를 1회씩 개최하였다.

#### 연구자문위원회 연구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심중보	콜로라도 주립대 교수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
정세창	홍익대 교수	박소정	서울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젬마	경희대 교수
장연주	충북대 교수	이기형	(전)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동아대 교수	류건식	(전)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희	플로리다 주립대 교수	민기식	(전)KB라이프생명 부회장

#### 연구자문위원회 발전분과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한	(전)KCB(주) 상임감사
김영대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대표변호사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
양충모	전북대 초빙교수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준	연세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 5 임직원 현황

(2025. 12월 말 현재)

원장	연구직			행정원	초빙연구위원	임시직원	합계
	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조원				
1	27	21	3	14	-	3	69

## 2025 연차보고서

발행인 안철경  
편집위원장 조재린  
편집위원 김형진  
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발행일 2026. 2.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